

데스크시각



박진현
제작국장·문화선임기자

지난 3월 어느 날, 오전 11시밖에 안 됐는데도 전시장은 수십여 명의 관람객들로 북적였다. 친구들과 함께 온 듯한 중년 여성들에서부터 데이트를 즐기는 연인들, 넥타이 차림의 40대 직장인까지 다양했다. 이중섭·박수근·김환기·백남준·나혜석·오지호·이인성·이응노·전수천... 학창 시절 미술 교과서에서나 봤던 거장들의 작품을 '직관'해서일까. 전시장의 작품들을 바라보는 관람객들의 표정에 설렘이 가득했다. 이들 중 일부는 전시장 입구의 카페로 자리를 옮겨 각자의 '후기'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다.

최근 전북 정읍 시립미술관을 다녀간 방문객이라면 '격하게' 공감하는 풍경이다. 3개월 동안 열린 '100년의 기다림-한국 근현대 명화전' (1월24-4월20일)은 지방의 작은 미술관을 일약 뉴스메이커로 만들었다. 총 관람객은 3만 2589명이나 됐다. 하루 평균 50여 명에 불과했던 방문객은 이번 전시 기간에는 하루 평균 400명을 훌쩍 넘어섰다. 지난 2015년 10월 개관 이후 가장 많은 신기록을 세

광주, '아 유 레디?'

운 것이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광주, 서울, 부산, 수원 등 외지 방문객으로 알려졌다. 이 전시로 정읍미술관은 단숨에 전국구 미술관으로 떠오르는 쾌거를 거뒀다. 정읍 인구가 11만여 명인 점을 감안하면 '일대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가장 큰 성과는 미술관의 문턱을 낮췄다는 것이다. 농사짓느라 미술관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었다는 어르신들이 입소문을 듣고 난생 처음 마실 삼아

정읍 시립미술관의 기적

전시장을 찾기도 했다. '도대체 어떤 그림들이 있기에 멀리서 자가용 타고 우리 동네까지 올까...' 평소 관심조차 갖지 않았던 정읍미술관의 존재를 주민들이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작은 미술관'이 한국 회화의 거장들을 '초대'하게 된 데에는 정읍시의 지원이 컸다. 올해를 '정읍 방문의 해'로 정한 시는 관람객들을 불러 모으는 콘텐츠를 고민하던 중 '빅 카드'를 내놓자는 이홍재 미술관장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2억 5000여 만 원의 예산을 들여 국내에서 내로라하는 가나아트 재단의 컬렉션을 유치하기로 한 것이다. 한 해 전시 예산이 1억 원 남짓에 불과한 정읍미술관으로서는 파격적인 선택이었다. 게다가 정읍 방문의 해를 기념해 관람료도 무료로 책정했다.

이처럼 '잘 만든' 전시는 사람들을 끌

어들이는 강한 흡인력이 있다. 국내는 물론 외국의 유명 미술관에서도 관광객들이 대거 몰리는 여름 휴가철이나 연말연시에 블록버스터전 혹은 퀄리티 높은 특별기획전을 내놓는 것은 그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지역의 대표 미술관인 광주 시립미술관의 '2019년 전시 라인업'은 다소 아쉬움이 있다.

지난달 개막한 '남도미술 뿌리 Roots'(6월8일까지)전을 들여다보자. 전승보 관장이 지난해 10월 취임 한 후 처음으로 기획한 전시라고 하지만 국립현대미술관이 광주를 시작으로 제주·대구에서 여는 '2019 국립미술관 순회전'이다. 한데 참여 작가 중 상당수가 얼마 전 막을 내린 정읍미술관 '100년 전...'과 겹쳐 의도하지 않게 비교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개막식에서 만난 일부 평론가들은 "한국 미술과 남도 미술을 조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정읍의 감동'을 뛰어넘는 경쟁력을 보여 줄 수 있을지의 문이다"라며 입을 모았다.

오는 7월 개막하는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7월12-28일)와 '세계 마스터스 수영선수권 대회'(8월5일-15일)를 기념해 기획한 '광주의 맛, 맛'(가제) 전 역시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미술의 도시다운 임팩트를 줄 수 있을 지 우려된다. 지역 문화계 안팎에선 전시 예산 1억 2000여 만 원을 들여, 그것도 6~7개월 만에 완성도 높은 '작품'이 나올 것인가에 대해 다소 회의적이다. 통상 대형 기획전

은 최소 1년 전부터 준비하는데 이번 전시는 올 초에야 구상됐기 때문이다.

물론 막대한 예산을 들인 블록버스터 전이라고 꼭 좋은 전시는 아니다. 가장 지역적인 것이 세계적이라는 말도 있다. 하지만 메가 스포츠 이벤트를 보기 위해 광주에 오는 외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선 스케일이나 퀄리티 면에서 독보적이어야 한다.

더불어 광주는 비엔날레의 개최지이자 유네스코가 정한 미디어 창의 도시이기도 하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올 여름, 전 세계 관광객이 몰리는 천군 같은 기회에 광주의 문화적 역량을 보여주는 비엔날레 아카이브나 미디어아트 콘텐츠를 제갈할 수 있는 '장'(場)이 거의 없다.

'수영대회' 문화 특수 노려야

전시는 특정 시간에 가야만 즐길 수 있는 공연과 달리 상대적으로 시간 제약 없이 많은 사람이 둘러볼 수 있는 '가성비 높은' 볼거리인데도 말이다. 광주시와 문화계가 수영선수권대회 특수를 겨냥한 전시 콘텐츠에 '공을 들여야' 하는 이유다. 이번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진정한 레거시(legacy, 자산·유산)는 글로벌 무대에 문화 광주의 저력을 보여주는 것일 테니. 부디, 이런 염려가 단지 기우에 그치지길 바란다...

/jhpark@kwangju.co.kr

기고



이정희
한국전력 상임감사위원

"지구 온난화에 대한 대책 없이는 자연 보호도 없다."(Ohne Klimaschutz kein Naturschutz.) 얼마 전 들른 독일의 에너지 자립 마을 마를펠트하임에 쓰여 있는 말이다. 펠트하임은 독일 브란덴부르크 주 트로이엔브리첸 시에 있는 인구 130명이 사는 작은 농촌이지만 직접 만들어낸 재생 에너지로 난방과 전력을 모두 해결하는 에너지 자립의 대표적인 모델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다.

이 마을은 현재 55기의 풍력 터빈에서 연간 250GWh, 태양광 발전으로 2.75 GWh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으며, 농가의 가족 분뇨에서 바이오 가스(메탄)를 추출하고 이것으로 열병합 발전기를 돌려 전력과 난방열을 공급하고 있다. 이

에너지 자립을 통한 환경 보호와 일자리 창출

는 약 6만 1700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마을에서 생산한 전기 중 1%는 마을의 가정, 공공시설, 농장 등에서 사용하고 나머지 99%는 '에네르기 크엘러'라는 지역 에너지 회사를 통해 인근 대도시인 베를린과 포츠담에 판매한다.

펠트하임이 신재생 에너지 마을로 조성된 것은 24년 전이다. 이 프로젝트 시작 당시 마을 주민들은 단 한 명의 반대도 없이 100% 찬성한 것으로 유명하다. 주민들은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후 원전에 대한 두려움이 커져 있었고, 기후 변화의 위협이 점차 커지면서 온실가스 감축과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재생 에너지 전환으로 전기 요금이 비싸지더라도 이를 감수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주목할 사실은 당시 대학생이던 마카엘리수만이 시 정부에 풍력 터빈 설치를 제안하고, 시장이 이를 받아들여 프로젝트가 성사되었다는 것이다. 젊은이의 창의력과 이를 받아들일 줄 아는 열린 마음이 합하여 이루어낸 업적이다.

재생 에너지 시설이 계속 늘어나면서

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 발전소 존폐에 대한 갈등이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고, 화석 연료로 인한 지구 온난화와 미세 먼지 발생으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또한 대도시 원전 및 화력 발전이 해안가에 건설됨에 따라 주변 환경의 생태 환경 파괴 우려는 물론이고 도시로 전력을 보내기 위한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로 지역 주민들과 갈등이 빚어져 크나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무엇보다 미래 세대를 위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재생 에너지 발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내고, 이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독일의 사례가 우리나라의 환경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 해도, 대형 발전 단지에 의존하지 않고 마을 단위로 풍력, 태양광, 바이오 에너지 등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자급자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형태의 에너지 자립 마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광주 총괄 건축가 제도에 거는 기대

바람 몇 가지를 나누고자 한다. 첫째는 시장의 철학과 열망이다. 시장은 도시·건축 정책과 전략, 방향에 대해 총괄 건축가와 수시로 만나 이야기해야 한다. 때론 정치적 선택도 하지만 광주의 지속적 경쟁력을 위한 철학적, 과학적, 전략적 판단에 따라 어려운 결단도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정책과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뿌리 내리게 지원할 별도 행정 조직을 구축해야 한다. 제도의 목적에 부합된 역할을 총괄 건축가가 수행하려면 부시장급의 위치에 있어야 한다. 다양한 입장의 관련국 업무를 조정 할 수 있는, 그에 상응하는 힘을 실어줘야 한다. 시장은 4년 임기, 총괄건축가는 2년 임기의 계약직(?)이다. 공무원은 정년이 보장된다. 지속 가능한 시스템 구축 없이는 절대 성공할 수 없는 구조다. 시장과 총괄 건축가가 설정한 방향을 지원할 조직 없이 몇 사람이, 또는 관련 부서의 담당자가 지원하는 행정 업무만으로는 무늬만 총괄이지 느슨한 자문 수준의 역할을 벗어날 수 없다.

둘째는 총괄 건축가의 역량과 열정이다. 이미 검증된 분이기예 그분의 건축적

역량을 논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광주에 대한 탁월한 사유의 시선과 열정이 요구된다. 이를 통한 광주 도시·건축 전략 수립, 추진, 조정 등의 역량을 기대한다. 광주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본질, 매력, 잠재력, 문화력, 도시 풍경 등등을 어떻게 건축을 통해 광주만의 경쟁력으로 만들어갈 건인지에 대한 비전과 실천 전략, 그리고 실천을 기대한다. 별것 아닌 것을 별것으로 만들 수 있었으면 한다. 늘 가까이 있어서 가치를 놓친 것이 있다면 이를 찾았으면 한다. 지금 새로 만들어야 할 것은 차후 지역 문화 유산이 되게 만들 수 있었어야 한다. 단기간에 이룰 수는 없다는 것도 안다. 그렇기 때문에 총괄 건축가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역량과 열정을 쏟아주길 기대한다.

셋째는 시민, 지역 전문가의 관심과 참여다. 도시·건축 정책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다. 외국이 높은 건축 문화와 예술 수준을 부러워하면서 현재 우리에게 없는 유산을 조성 탓, 남 탓만 할 때가 아니다. 지금의 우리는 우리와 이 지역에 살 후손들을 생각해야 한다. 물려줄 문화 유산이 없다면 지금부터라

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기본이고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높은 시선의 문화력이다. 관심과 참여다. 행동력이다. 서로 공부하고 토론하고 가치를 공유해서 광주 건축 문화 유산을 만들 수 있도록 정치권과 시장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지역 전문가들도 같은 마인드로 함께하며,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고 부족한 것은 서로 채워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시의 수준은 시민의 수준이라고 말하지 않는가.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빨리 그리고 멀리 가려면 '좋은 사람'들과 함께 가라"는 말이 있다. 시장, 총괄 건축가, 시민, 전문가들은 각자 '좋은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한 명 한 명의 작은 판단과 실천이 곧 조직의 판단력과 실천력이 되고, 나아가 시민의 이익과 광주 경쟁력에 영향을 준다는 소명 의식이 필요하다. 우리 모두 역량 있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앞으로 살 시 민에게 도시에 대한 자긍심과 건축 문화 유산이 많은 도시 풍경을 선듯할 수 있기를 총괄 건축가 제도를 통해 기대해 본다.

社說

'광주형 일자리' 투자 마중물 효과 기대한다

광주시가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설립사업'의 투자 규모를 당초 7000억 원에서 1255억 원 감소한 5745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한다. 공장 설립 초기 투자수익률을 높여 경영 효율을 꾀하기 위한 조치라니 다행이다. 10만 대 생산 계획 등 큰 틀은 유지하면서도 초기 투자금을 줄여 완성차공장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특히 투자 수익률 관련인 삼일회계법인 등 전문가들은 애초보다 1255억 원 줄여 공장을 설립해도 충분히 SUV 경차 10만 대를 양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는 것이다.

여하튼 이 같은 결정으로 이제 은행 차입금에 따른 이자 부담과 광주시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완성차공장의 설립 초기 과도한 이자 부담은 경영 악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금 변경에 따라 광주시의 투자 금액은 애초 590억 원에서 483억 원으로, 현대차 투자 금액도 530억 원에

서 437억 원으로 줄게 된다.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투자를 유치해야 하는 일반 투자금도 감소해 부담을 덜었다. 애초 국내의 기업들로부터 1680억 원의 투자를 받을 예정이었는데 1380억 원으로 감소했다.

이런 가운데 광주은행이 '광주형 일자리' 첫 모델인 자동차공장 합작법인에 100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광주시와 현대자동차를 제외하고 민간기업이 투자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투자 유치 마케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 이 같은 투자 결정은 다른 투자자 모집에도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광주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시대적 소명이다.

이번 광주은행의 투자 결정이 마중물이 되어 민간 우량 기업들의 잇단 투자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패스트트랙' 출발 이제라도 합의의 정치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 설치 법안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진통 끝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에 올랐다. 정치 개혁과 사법 개혁의 핵심 사안에 대한 입법 절차가 본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향후 처리 과정이 주목된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어제 새벽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를 열어 이들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한국당은 이날 회의장 앞을 가로막고 표적 저지에 나섰지만, 질서 유지권을 발동한 채 장소를 변경해 열린 회의를 봉쇄하지는 못했다.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225석·권역별 비례 75석 고정 및 연동률 50% 적용, 선거 연령 만 18세 하향 등이 핵심이다. 사표를 줄이고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여론의 지지도 높다. 또 공수처 설치법은 여야 4당 합의안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

안이 동시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이들 법안들은 최종 330일이 걸리는 일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되게 된다. 상임위법 안건 조정 제도를 통해 90일, 국회 의장 재량으로 본회의의 부의 시간 60일을 줄이면 180일 만에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여야 간 복잡한 쟁점 때문에 실제 입법화하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특히 한국당이 장외투쟁을 불사하겠다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 국회 파행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치는 타협의 예술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4당은 이들 개혁 법안을 한국당과 협상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한국당 역시 의지만 있다면 자신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만큼 선거제 개혁 등의 협상에 진정성을 갖고 동참해야 한다. 무엇보다 경기 활성화를 위한 추경 예산안 및 민생 법안 처리가 시급한 만큼 극단적 대결에서 벗어나 국회의 조기 정상화부터 서둘러야 할 것이다.

無等鼓

대한민국에는 지구상의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국회(國會)가 있다. 창피한 일이지만, 이른바 '동물 국회' '식물 국회'다. 여야 대치 속에 수많은 민생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서 '식물 국회'로 불렸고, 최근에는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국회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놓고 싸질을 하는 '동물 국회'로 변했다.

'식물 국회'는 누가 제 기능을 못하는 식물인간을 빗댄 말로, 즉 국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점을

'동물 국회'

총과 육탄전 등 물리적 충돌을 빚는 상황을 비유한 것이다. 지난 2012년 5월, 다수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과 국회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국회 선진화법'이 통과됐지만, 7년 만에 다시 '동물 국회'가 등장한 것이다. 오죽하면 국민들이 나서 정당 해산 청원을 하고 있겠는가.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 인원은 어제 오후 130만 명을 돌파했다. 역대 최대 추천 청원이었던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심신미약 감형 반대' 119만 명을 훌쩍 넘어선 것이다.

청원 참여자들은 자유한국당의 정부 입법 발목 잡기, 소방 예산 삭감으로 국민 안전 심각하게 위협, 국민에 대한 지나친 막말 등을 청원 이유로 들었다. 이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이번 패스트트랙 지정을 통해 여당과 정부에 '국차 독재'라는 프레임을 씌우으로써 '보수 대통합'을 꾀하려 했지만, 오히려 부패당을 맞은 것처럼 보인다.

이번 청원 숫자의 역풍은 옹이다. '동물 국회'는 국회에서 몸싸움과 육탄전 등 물리적 충돌을 빚는 상황을 비유한 것이다. 지난 2012년 5월, 다수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과 국회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국회 선진화법'이 통과됐지만, 7년 만에 다시 '동물 국회'가 등장한 것이다.

이런 청원 숫자의 역풍은 옹이다. '동물 국회'는 국회에서 몸싸움과 육탄전 등 물리적 충돌을 빚는 상황을 비유한 것이다. 지난 2012년 5월, 다수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과 국회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국회 선진화법'이 통과됐지만, 7년 만에 다시 '동물 국회'가 등장한 것이다. 오죽하면 국민들이 나서 정당 해산 청원을 하고 있겠는가.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 인원은 어제 오후 130만 명을 돌파했다. 역대 최대 추천 청원이었던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심신미약 감형 반대' 119만 명을 훌쩍 넘어선 것이다.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월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국무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여론매체부 220-065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예향부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